나주시, 공공비축 건조벼 매입 본격화…추가 물량 확보 총력

12일 동강면 시작으로 읍면동별 순차 매입



윤병태 시장(왼쪽)이 출하된 쌀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동강면을 시작으로 2026년산 공공비축 건조벼 매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낮은 매입물량 감소 폭을 유지하며 농가 소득 안정에 나서고 있다. 17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동강면을 시작으로 관내 읍면동별 공공비축 건조벼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매입물량 확보에 적극 대응한다.

공공비축제는 자연재해와 식량 부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 매년 정부의 양곡 수급계획에 따라 매입 규모가 결정된다.

올해 정부 공공비축미곡 매입 규모는 가루쌀 3만 5천 톤을 포함해 총 40만 톤으로 결정됐으며 정부의 양곡 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별 매입물량이 배정됐다.

나주시에 배정된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은 6.8% 감소한 총 8130톤으로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매입물량 감소율인 14.7%보다 7.9% 낮은 수준이다.

나주시는 제한된 배정 물량 속에서도 농가별 형평성과 안정적인 매입을 고려해 읍면동별 재배면적과 전년도 매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물량을 배정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보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공공비축미곡 추가 매입물량 배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교육 운영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17일부터 26일까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5개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알레르기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예방·관리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알레르기질환의 이해와 아토피피부염 관리 '1·3·3 법칙'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비만·영양 등 통합건강증진 교육 ▲올바른 손씻기를 통한 감염병 예방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천연비누 만들기와 영양·비만, 개인위생 교육을 통해 피부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2026년 제2회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난 14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회랑에서 화순축협(조합장 정삼차) 주최로 '제2회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축산업 발전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 놓인 축산농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한편, 화순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적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유공자 표창과 축산물 홍보·시식 등을 통해 축산인들의 화합과 지역 축산업 발전을 도모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대한체육회에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반영 건의

장세일 영광군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만나 국가 훈련거점 조성 제안



장세일 영광군수, 대한체육회장과 면담 사진 /영광군청 제공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16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면담하고, 대한민국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가칭)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존 국가대표 중심의 훈련체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미래형 선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광군은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 차원의 훈련거점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한체육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미래 국가대표 육성사업은 꿈나무·청소년·후보·예비국가대표 등 4단계에 걸쳐 4,498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훈련이 주로 방학 기간 단기 합숙 형태로 진행돼 지속적인 전문훈련과 선수별 성장과정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현 국가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꿈나무와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성장단계에 맞춰 전문훈련을 받을 별도의 육성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광군의 설명이다.

이에 영광군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기능을 분담하고, 유망선수 발굴부터 육성, 전문훈련, 스포츠과학 연구까지 연계하는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AI 기반 경기력 분석과 선수별 맞춤형 훈련, 부상 예방 및 회복관리 등 첨단 스포츠과학 기술을 도입해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진 기자

장성군 "에너지에 미래 경쟁력 달렸다"

19일 아카데미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강연

장성군이 19일 제1242회 장성아카데미에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강연을 마련했다.

'반도체를 품으려면 에너지부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황주호 강사는 인공지능 산업 확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살펴본다.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술적 가능성과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호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확대 기회와 에너지 자원 활용 방향도 제시한다.

황주호 강사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미글로벌㈜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기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번 강연이 에너지의 미래를 이해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 /장성군 제공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오후 4시까지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한편, 오는 12월 3일 장성아카데미에선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7, 대한민국 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김재섭 기자

